

민선9기 이원택 도지사의 각오

“차분하면서 신속하게 전북 현안 매듭지을 것”

Q. 취임 소감과 함께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민선 9기 도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전북이 가야 할 환경과 구조가 녹록지 않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북이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전북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매듭지겠습니다.

구호와 말보다 민생의 현장에서 직접 땀으로 부딪치며 도민의 삶을 반드시 바꿔내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Q.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도민주권’과 ‘체감성장’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 의미는 무엇이며, 기존 도정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민이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고, 도민주권 지방정부를 통해서 전북의 강점을 살리는 진짜 체감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도민주권은 도민들이 참여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방점을 두는 일입니다.

체감성장은 성장의 과실이 도민의 삶과 주머니로 직접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정작 전북의 기업과 인재, 성장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병행하되, 전북자치도의 내부 기업에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도정으로 확실히 차별화하겠습니다.

Q. 간부회의 생중계와 청사 스피드

“도민주권, 도민 참여 정책 설계·만들어가는 과정에 방점

열린 도정,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바꾸기 위한 첫 단추

지역기업에 더 많은 혁신·성장 기회 부여… 자생력 강화

전북성장공사·미래성장펀드, 경제 자생력 키우는 양대 축

재생에너지 강력 육성, 전북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을 것”

게이트 개방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이유와 기대효과를 무엇입니까?

- 민선9기 열린도정은 도민 삶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바꾸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도민이 선거 때만 주인이 되는 도정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청 문턱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정책 사회작대화추진단, 현장 소통, 정책 제안 플랫폼, 지역별 속의 과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회의 생중계와 스피드게이트 개방은 도정운영방식을 도민주권시대에 맞게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Q. 일각에서는 간부회의 생중계가 오히려 공무원 조직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는 무엇입니까?

- 생중계에 대한 일각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의 본질은 도지사인 제가 중심이 되어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도정의 속도를 높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책임도정

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경직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듣고 소통하고, 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월 1회 공개회의를 통해서 도정의 의지와 방향을 도민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Q. 선거 과정에서 ‘외부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지역기업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까? 어떻게 비워 나갈 계획입니까?

- 기본적으로 지역기업에 더 많은 혁신과 성장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상생의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생각입니다. 과거 대기업 유치 중심의 전략은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북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향토기업과 민생경제를 키워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의 중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 유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수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5극3축 성장엔진과 연계한 첨단·전략산업 기업 중심의 투자유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원택 도지사가 민선9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외부 기업의 유치를 마중물로 삼으면서 도내 기업들이 반도체 케미컬, 그린수소, 로봇 파운드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Q.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성장펀드 조성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기하셨습니다. 이 두 기구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까?

- 전북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추진하는 전북성장공사와 미래성장펀드는 바로 지역 경제

의 자생력을 키우는 양대 축이 될 것입니다. 각각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과 기업 투자라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 전북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전북성장공사(가칭)’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와 전략산업 프로젝트 금융 투자 등 지역의 대규모 전략 사업을 주도하는 실행 기관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와 동시에 도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미래성장펀드’는 전북의 유망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투자 재원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출범시키겠습니다.

Q. A와 반도체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면 전력 이 중요합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산업이나 수소 산업 같은 첨단산업은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 그 성과가 달려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강력하게 육성해 전북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습니다.

현재 전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5GW 수준인데, 이걸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GW 규모로 확기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설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력계통도 동시에 고도화하겠습니다.

도내 전력계통의 수용력과 안정성을 분석해서 계통포화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도 확충해서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면, 탄소국경조정분담금 면제를 고민하는 글로벌 AI나 반도체 기업들이 전북의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개발공사가 공공형 시행사로 발전하기를 기화하고 주도해,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도민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10만호 기자

시민 안전·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전주시, 7월 주요 현안 추진… 전주역 임시 개통·폭염 대응 등

전주시가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한 7월 주요 현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13일 주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주역 이용 체계 개편, 여름철 폭염 및 풍수에 대응, 지역기업 지원, 맞춤형 복지·교육 확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전주역 증축 역사 임시 사용이다. 전주시는 오는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전주역 증축 역사 우측 공간과 후면 주차장 선상 연결 통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전면 주차장은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운영 중인 택시 승강장도 단계적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시는 전주역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코레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사전 안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 안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폭염 대응을 위해 한옥마을에는 쿨링포그와 음음길을 조성하고, 오목대 전통정원에는 대형 그늘막과 냉풍기를 갖춘 친수 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보건소는 폭염 취약계층 5,254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인부 확인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전라선 에코시티 구간에는 월류 방지를 위한 분파대 설치 완료했으며,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월경지구 고지배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15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도 민전을 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전주시는 전북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수출기업의 해상 운송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우체국소포와 연계한 온라인 판촉을 통해 전주 대표 상품인 ‘바이전주’ 제품의 판로 확대에 나선다.

또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지원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도시재생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주시는 상반기 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AI) 교육을 하반기에는 생애주기별·직군별 맞춤형 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시립도서관 12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81회의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인후 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지하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며, 동완리동 새뜰마을에는 경로당과 카페 등이 포함된 주민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착공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140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전주역 이용 변경 등 주요 생활 변화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매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시청 주요 추진업무를 상세하게 알리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만호 기자



3대 메가프로젝트

전북 패싱 대응한다

도의회, 특위 전격 구성

최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의장 김희수)는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16일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이병도·박정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대변인 등이 참여하는 의정대표협의회에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전북 배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내린 후속책이다.

특히 의정대표협의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민의 상실감을 대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초대형 전략사업 유치·대응을 주도할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향후 구성될 특위는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지역 정치권, 정부 등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 첨단산업 정책에 전북이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물에 안으로 가시 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 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기로 했다.

/10만호 기자

“전북 목소리를 혁신당 중심으로”

황현선 최고위원 후보 “지역·중앙 잇는 가교역할 할 것”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더 지방으로 향해야 하며, 지역의 목소리가 당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가 전북의 현장 목소리를 중앙당 운영에 반영하고, 지역 중심의 정치 혁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더 지방으로 향해야 하며, 지역의 목소리가 당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경청간담회에 이어 전북 지

역의 민심을 청취하고 향후 당 혁신 방향과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황 후보는 “전북은 조국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 혁신을 실천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전북에 대한 민국의 미래 전략을 제안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순히 개별 사업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겪어온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

치”라며 “전북이 겪어온 4중 소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방향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이 국가 성장전략을 주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재만금과 농생명 산업, 재생에너지 등 전북이 가진 미래산업을 대한민국 성장전략과 연결하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발전을 위한 정치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 후보는 “정권교체 이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책임 있는 협력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전북에서부터 협력 모델을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은 중앙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당에 전달하는 자리”라며 “끝까지 책임지는 최고위원,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한다.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출 등 조직 정비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10만호 기자



인명숙 의장(사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를 표방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대안 중심의 책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